

정책분석과 동향

청년 은둔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청년 은둔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Social Withdrawal in Young Adults: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2022년과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현대 한국 청년 은둔의 양상과 욕구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청년 은둔은 사회 활동을 위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그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증가했다. 실제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은둔하던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취약 집단으로서 고립·은둔 청년의 삶과 욕구를 분석하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와 지원 사업 체계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거점기관 등 사업 범위의 지역 확장,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인식 개선과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19~34세 청년 중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 없이 고립된 청년은 2023년 기준 4.7%로 추정된다(김성아, 노현주, 2024). 같은 시기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약 49만 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청년이 고립되거나 은

둔하면서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낮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등 취약한 상황이 지속 되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원, 고립 청년 1인당 약 21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최영준 외, 2023). 단절되어 은둔하는 경험은 청년 당사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유발하

고 가족과 주변인의 고통으로까지 확산된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고립의 극단적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은둔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과 ‘고립 혹은 은둔’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언론 기사 현황을 검색한 결과 관련 기사는 2022년 하반기 705건,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150건과 1913건,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900건과 2061건, 2025년 상반기 25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관련 언론 기사는 1만 건을 넘었다.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2024년 8월 14일 전국 4곳에 개소한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2025년 2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공포되면서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은 2026년 전국 확대 및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과 함께 위기 청년으로서 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은둔 청년의 자기 인식이 확장되고 실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미래센터가 중심이 돼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들에 대한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배제 청년이나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원하는 고용, 교육, 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혹은 히키코모리의 틀을 이식하기보다 현대 한국에서 고립된 은둔 청년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은둔 양상과 고유한 욕구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신영규, 2023; 노현주, 김성아, 2024).

이 글에서는 2022년과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년 은둔의 양상 변화와 욕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19~34세 청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년 주기로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며 대표성을 가진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취약성으로서 고립·은둔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에서 고려할 과제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은둔 청년의 개념과 실태

‘은둔’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일을 피하여 숨음”이다(국립국어원, n.d.).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은 경제 수준이나 고용 상태 같은 전통적 기준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취약 집단이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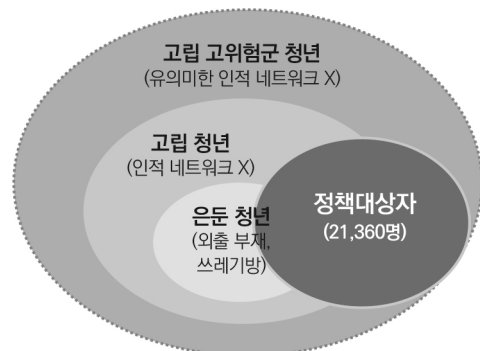
수는 있지만,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패 경험을 겪으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고립된다. 2023년 12월에 발표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에 따르면 고립 청년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 체계가 부재한 청년”으로, 은둔 청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거주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청년”으로 정의된다(관계부처 합동, 2023. 12. 13.).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외출 상태와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출이 제한된 이유를 질문하고 있다. 평소 외출 상태는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

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의 8개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 중에서 ⑤~⑧을 선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외출하며 은둔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하며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를 묻는다. 그 이유로는 청년이 직면할 수 있는 성인 이행기 과업을 고려해 ‘① 학업의 중단으로’, ‘② 대학 진학의 실패로’, ‘③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④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⑤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⑦ 기타’의 7개 선택지를 제시한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의 극단적 형태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거나 사회활동을 위한 외출을 제한하는 등 외형적으로 두드러지는 은둔에 주목하기 위해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나 건강 문제 혹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김성아,

[그림 1] 청년의 고립·은둔 구분 지표 및 개념도

구분	경제활동	사회관계	외부 외출
고위험군		△ 사회관계 자본 부족	△ 외출 낮음
고립	x (미고려)	x 사회관계 자본 부족·결핍	△ 외출 적거나 없음
은둔		x 사회관계 자본 결핍	x 외출 없음



출처: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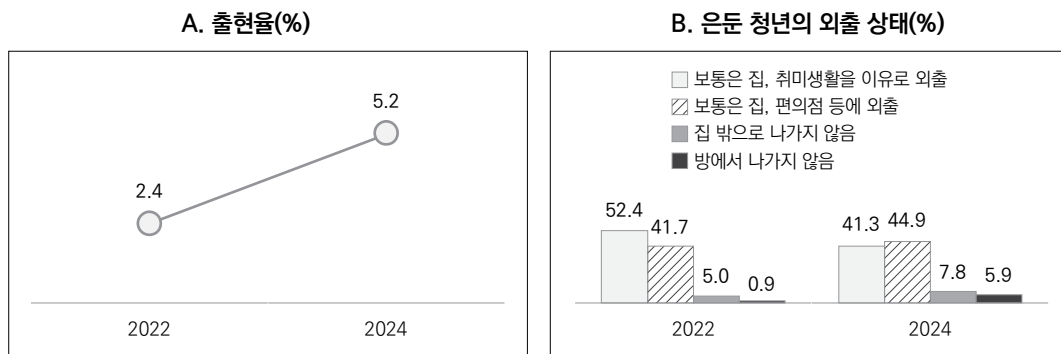
2023).¹⁾

외출 상태와 외출하지 않는 이유를 조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한 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 중 2022년 기준 2.4% 정도로 나타났는데, 2024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5.2%로 2.8%포인트 늘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응답한 은둔 청년의 특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은둔 청년의 외출 상태는 2022년에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는 응답률은 52.4%,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는 응답률은 41.7%,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0%이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0.9%에 불과하다. 2024년에는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

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는 응답률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는 응답률이 41.3%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7.8%로,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5.9%로 증가한 것이다.

현세대 청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모집단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훈련된 조사원이 방문하여 대면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조사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면(정세정 외, 2022, pp. 75; 정세정 외, 2024, pp. 51-52)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은둔 청년은 접촉 불가나 조사 거부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체계적 가능성이 존재할

[그림 2] 은둔 청년의 출현율과 외출 상태(2022, 2024년)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1)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변수로는 관계부처 합동(2023. 12. 13.)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교류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부재한 고립 청년을 추정하는 데에 제한적이어서 이 글에서는 분석 자료의 이용 가능성 범위 내 청년 은둔에 한한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에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이 0.9%에 불과한 것은 과소 대표된 결과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조사에서 같은 외출 상태의 은둔 청년이 5.9%로 증가한 것은 은둔 청년의 조사 참여 행동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취약 집단으로서 은둔 청년을 조명하는 언론 기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 은둔 청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며 ‘평범함을 회복’하는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김성아 외, 2025, p.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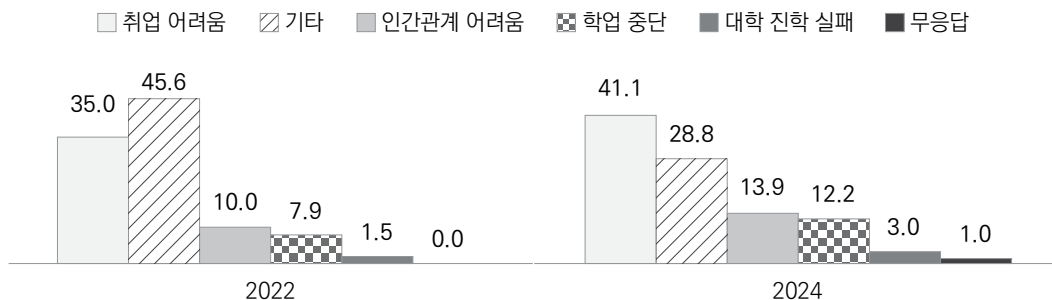
은둔 청년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구체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22년 기준 은둔 청년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주된 이유의 1순위는 기타였다. 그 응답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혼재하거나 특정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례가 많았다. 당시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취업 어려움이었다. 2024년에는 취업 어려움의 응답률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기타(28.8%)의 응답률이 높지만, 인간관계 어려움(13.9%), 학업 중단(12.2%) 등의 비율이 2022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둔하고 있는 자기를 이해하고, 그 이유에 대한 인식 또한 구체화된 것일 수 있다.

은둔 상태가 지속된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이 2022년 기준 38.2%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29.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0.3%의 순이다. 7년 이상인 경우도 4.0% 정도 있다. 2024년에도 6개월 미만이 35.4%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25.8%,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4% 정도다. 7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는

[그림 3] 은둔 청년의 외출 상태 이유(2022, 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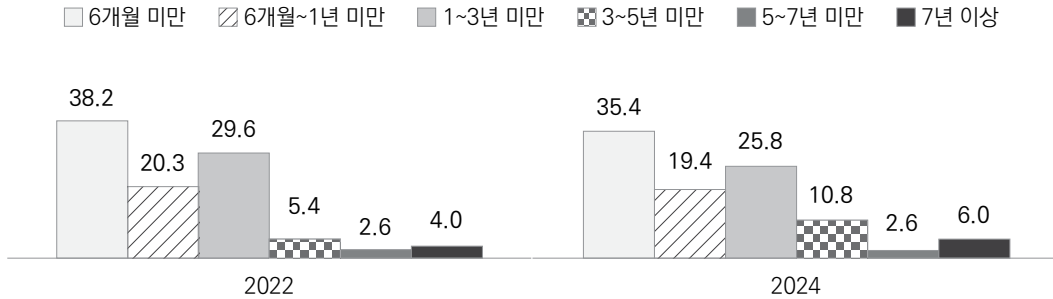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그림 4] 청년의 은둔 기간(2022, 2024년)

(단위: %)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6.0%로 2년 전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외출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지원 사업에서 이를 준용한다면 은둔 청년의 35~40% 정도가 배제될 수 있다. 혹은 이들이 은둔 기간을 6개월 이상 지속하기를 기다린 후에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취약한 상태의 은둔을 벗어나게 하고 회복과 자립을 지원한다면 예방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는 단기 은둔자를 포괄해야 한다. 따라서 은둔 상태의 지속 기간을 지원 대상 선정 단계에서 고려하기보다 회복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여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은둔 청년의 삶과 욕구

현세대 청년의 삶을 대표하는 통계 자료로서 청년 삶 실태조사를 분석하면 은둔 청년의 절반 이상이 남성으로 높고, 비은둔 청년²⁾ 역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은 편이다(표 1). 한편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표적화된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 방식을 사용한 2023년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³⁾에서 외출 상태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의 기준을 준용했음에도 은둔 청년 중 남성의 비율이 28.7%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은둔 청년 중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지만, 고립·은둔 청년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고 조사 참여 등 실제 행동

2) 비은둔 청년은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은둔 청년이 아닌 집단으로, 평소 외출 상태에 대한 응답이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이거나, 외출을 거의 하지 않지만, 그 이유가 ‘⑤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인 경우이다. 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는 [그림 2]의 설명에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3) 2023년 실태조사의 조사 방식은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을 가능한 한 많이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김성아 외, 2023, pp. 118~119).

[표 1] 은둔 청년의 성별 구성

(단위: %)

구분	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2022년		2024년		2023년
	비은둔	은둔	비은둔	은둔	은둔
남자	52.5	54.6	52.2	59.9	28.7
여자	47.6	45.4	47.8	40.1	7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청년 삶 실태조사 분석 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비교를 위해 2023년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외출 상태 및 현재 외출 상태 이유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 은둔 청년에 한함.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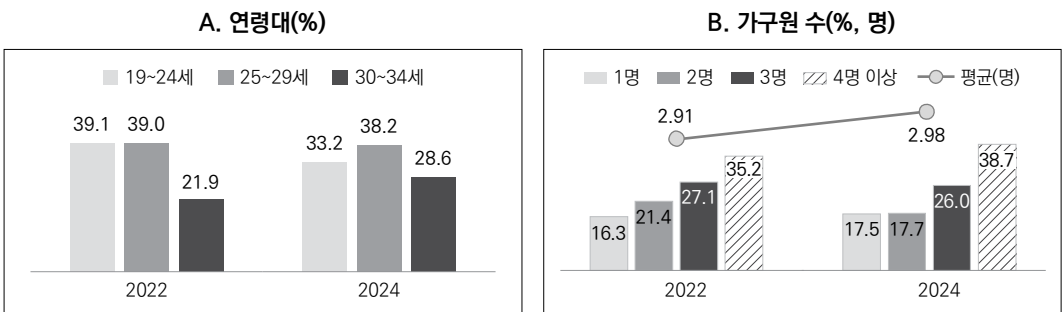
에 변화를 보이는 비율은 여성이 높았다.

은둔 청년은 30대 초반보다 20대 초반, 특히 20대 후반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2년 조사 당시에는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집단의 비율이 유사했으나, 2024년에는 20대 후반의 비율이 20대 초반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은둔 청년이 속한 가구의 규모는 2022년 평균 2.91명에서 2024년 2.98명

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구원 수별 비율을 보면 4인 이상 가구가 2022년과 2024년 모두 일관되게 가장 높다. 1인 가구 청년이 은둔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2인 이상 가구에서 청년이 은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은둔 청년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20.1%인

[그림 5] 은둔 청년의 연령대와 가구 규모(2022,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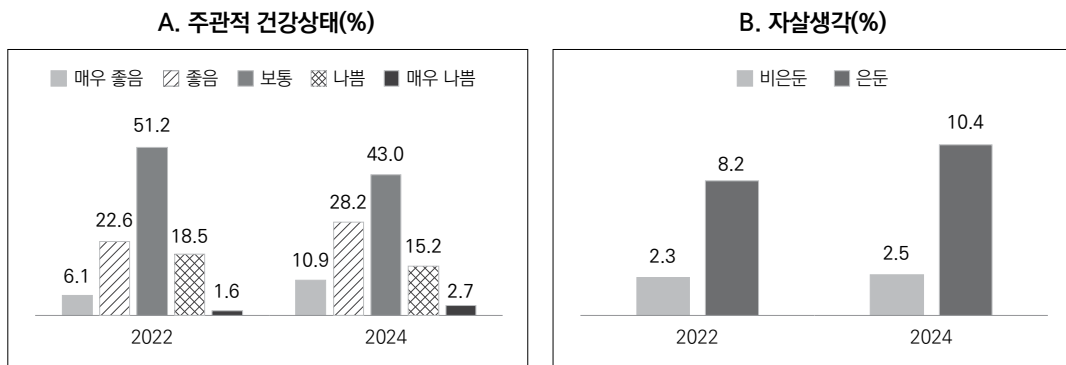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데, 2024년에는 17.9%로 다소 줄었다. 한편 ‘매우 나쁘다’는 응답률은 1.6%에서 2.7%로 다소 증가했다. 은둔 청년 중 자살생각을 한 비율은 2022년 8.2%에서 2024년 10.4%로 늘었다. 같은 기

간 은둔하지 않는 청년의 자살생각 비율 2.3%와 2.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조사에 참여하는 은둔 청년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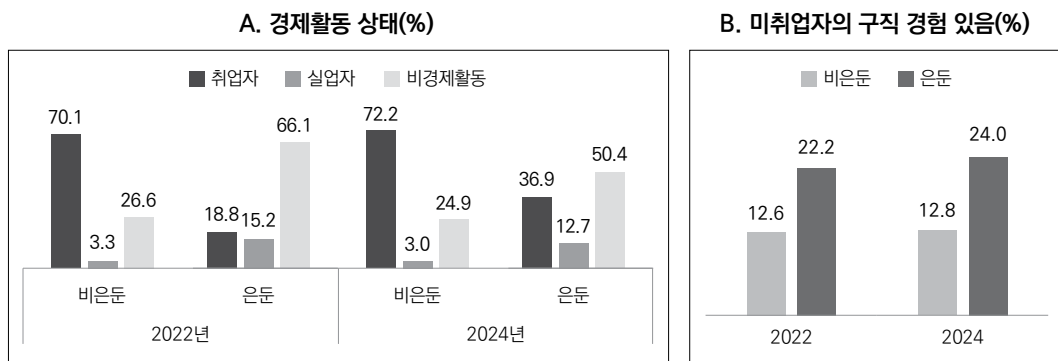
[그림 6] 은둔 청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살생각(2022, 2024년)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그림 7] 은둔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와 미취업자 구직 경험(2022, 2024년)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있지만,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집단이 새롭게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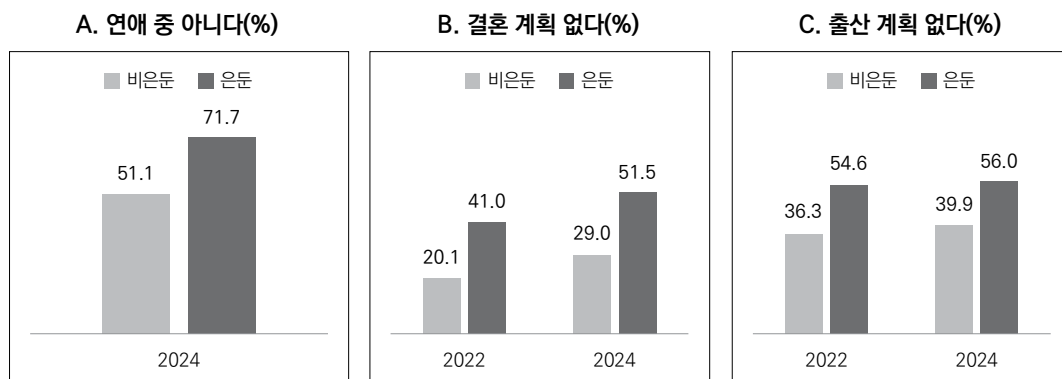
은둔 청년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은둔하지 않는 청년에 비해 현저히 높는데, 이 추세는 2022년과 2024년에 일관된다. 주목할 점은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한 비율은 은둔 청년이 은둔하지 않는 청년에 비해 높고, 이러한 경향 또한 2022년과 2024년에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 3]에서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는 ‘취업 어려움’이 고립·은둔 기간에도 지속되지만, 이들이 또래 청년들처럼 평범하게 일하려는 의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은둔 청년 중 연애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71.7%로 은둔하지 않는 청년(51.1%)에 비해 높다.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 역시 은둔 청년이 은둔하지 않는 청년에 비해 높는데, 이 경향

은 2022년과 2024년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은둔 청년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며 세계를 확장하는 생애 선택으로 연애나 결혼, 출산 등에서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둔하지 않는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이 2022년 6.77점에서 2024년 6.76점으로 유지되었다. 은둔 청년의 평균 삶의 만족 수준은 2022년 4.96점에서 2024년 5.65점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은둔하지 않는 청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미래 전망은 은둔 청년이 은둔하지 않는 청년에 비해 현저히 높다. 2022년 17.5%보다 2024년 19.7%로 더 높아졌다. 조사에서 나타나는 은둔 청년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 수준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정적 미래 전망이 강화된 것은 [그림 6]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거나 ‘매우 나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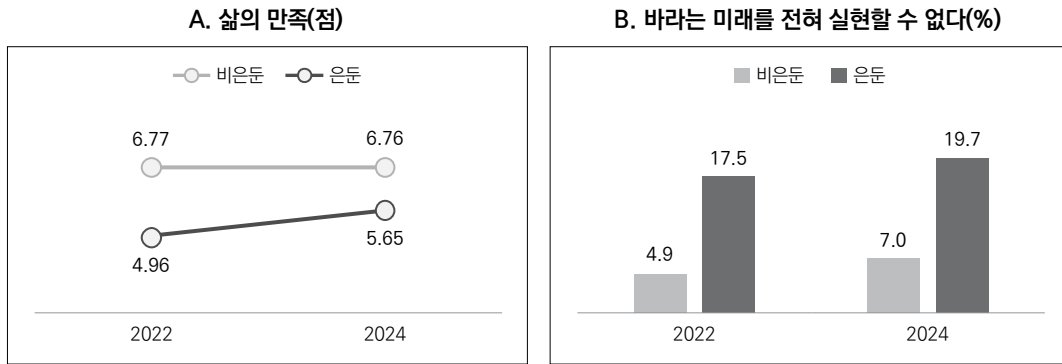
[그림 8] 은둔 청년의 연애와 결혼, 출산 계획(2022, 2024년)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결혼 및 출산 계획은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는 비율을 제외하였으므로 합계가 100.0%에 미치지 못함.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그림 9] 은둔 청년의 삶의 만족과 부정적 미래 전망(2022, 2024년)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삶의 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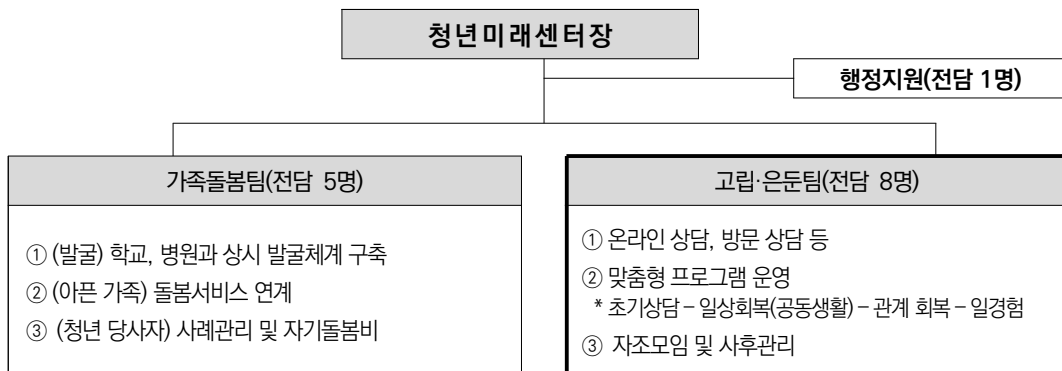
출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에 비해 2024년에 다소 감소했어도 극단적인 자살생각의 비율은 증가한 경향과 유사하다. 결국 청년의 은둔은 소득과 같은 경제력이나 고용 지위 등 전통적인 지표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일 수 있다.

4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경과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열었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에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그림 10] 청년미래센터 체계



출처: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4. 8. 14, p. 10 그림을 저자가 보완.

[표 2]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운영 현황(2024년 기준)

(단위: 명)

지역	청년미래센터 전담 인력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 ¹⁾ (A)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²⁾ (B)		소계(A+B)	
	정원	현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인천	14	14	240	368	80	323	320	691
울산	14	13	240	239	80	89	320	328
충북	14	13	240	161	80	112	320	273
전북	14	8	240	337	80	144	320	481
계	56	48	960	1,105	320	668	1,280	1,773

주: 1) 가족돌봄청년 발굴, 자기돌봄비 지급 등.
2) 고립·은둔 청년 발굴, 초기 상담,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등.
자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박승민, 2025, 국회예산정책처.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수행 기관이다. 각 센터는 8명의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사례관리한다. 사회활동을 위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 상태뿐만 아니라 고립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청년 ON 사이트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청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전담 인력이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후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립 수준과 욕구 등을 고려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회복, 공동생활, 자조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제공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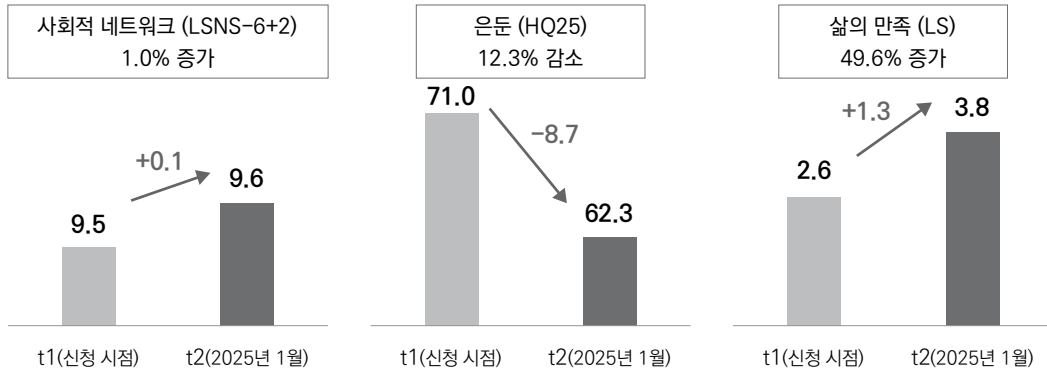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발굴 목표는 센터당 80명, 총 320명 정도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2024년 8월 중순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 이후 반

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목표치의 두 배 이상인 668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 발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립·은둔 청년은 변화를 위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고립·은둔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은 센터당 8명, 총 32명이 계획되어 밀착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의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미미하게 증가했으나, 은둔 상태와 삶의 만족 수준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성과를 측정한 시점이 2025년 1월로 센터 개소 후 사업을 수행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립·은둔 청년이 보여 주는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가 변화를 위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지를 보였고, 지원 사업의 체계화와 성숙에 따라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그림 11]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참여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네트워크, 은둔, 삶의 만족 변화

(단위: 점)



주: t1은 신청 시점 기준이고, t2는 결과 지표 2차 조사에 의한 사후 응답값으로 2025년 1월 기준임.

출처: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 평가 기초연구", 김성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07.

5 나가며

이 글은 2022년과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현대 한국 청년 은둔의 양상과 욕구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청년의 은둔은 사회활동을 위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로, 그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증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미래센터 사업 참여를 신청한 청년들이 목표치의 두 배를 넘고(표 2),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시범사업 수행 기간에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은둔 상태와 삶의 만족 수준이 개선되는 성과를 고려하면(그림 11)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은둔하던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취약 집단인 현대 한국의 고립·은둔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표준 지침을 제작, 배포하는 등 사업을 체계화해야 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미래센터의 시범사업의 경험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제도화될 전망이다. <표 2>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현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정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의 삶 실태와 욕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회복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내년 시행 예정인 법률 개정을 통해 혼재된 위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고립·은둔 청년의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사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단위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나아가 동네 단위의 촘촘한 근린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청년미래센터가 광역 단위 위기 청년 지원 사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 혹은 권역 단위의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사업 지침에 의한 지역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리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체계적인 지원 사업의 척추가 될 청년미래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수요를 반영해 특화사업을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청년센터, 비영리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앞서 은둔 청년의 삶과 욕구를 살펴본 것처럼 은둔 청년은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또래들처럼 일하며 자립하기를 시도한다(그림 7). 그러나 장시간 은둔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력을 쌓지 못할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에서 일상 회복과 일경험을 지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이 고립·은둔 청년을 스스로 도움으로써 새로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면 서비스의 특성을 가진다. 이때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이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림 10]과 <표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시범사업 전담 인력 1인당 사례관리할 청년의 수가 과도하여 소진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위기 청년 지원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청년미래센터에 종사하며 경력을 축적하도록 정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개정하여 청년미래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경력에 비례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에 청년복지론을 신설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고립과 은둔의 상태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명의 청년이라는 인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이상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은둔 청년들이 다시 방 안으로 숨게 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실태조사에 응답하고 <표 3>와 같이 청년미래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등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데에는 고립·은둔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여했을 수 있다. 고립과 은둔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위기 상태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변화가 필요할 때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서 청년미래센터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단순히 발굴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률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기 청년이 취약성을 극복하고 사회와 재연결되어 또래 청년들처럼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평범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사업 성과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행정 데이터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구체화되는 현시점에 이르러 이들이 보고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은둔 청년이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취업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은 편이다. 이런 어려움이 실제 취업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면에 내재한 복합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강화된 것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결국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위기 청년 지원 사업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새로운 취약 집단으로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심층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䄠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3. 12. 1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319, 6-20
- 김성아, 김문길, 임덕영, 노혜진, 노현주.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김문길, 안수란, 이정은, 하솔윝, 김아래미, 김주연, 노혜진, 박광동, 한솔희, 조보배. (2025).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 평가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노현주. (2024. 3.). 팬데믹 전후 사회적 고립의 생애주기별 현황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329, 68-81.
- 노현주, 김성아. (2024). 일본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30, 71-85.
- 박승민. (2025).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보건복지부. (2024. 8. 14.).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 신영규. (2023). 핀란드의 사회 배제 청년을 위한 지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7, 29-37.
- 정세정, 고혜진, 김기태, 김동진, 김성아, 오옥찬, 이아영,

- 이혜정, 임덕영, 신영규, 하은솔, 한겨레, 김근혜.
(2024).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세정, 김태완, 김동진, 김문길, 김기태, 이원진, 임덕영,
이혜정, 김성아, 함선유, 신영규, 류진아, 강예은.
(2022).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
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영준, 한은아, 김아래미, 김성아, 임소현, 이한빈, 최유
리. (2023).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청년재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n.d.). **‘청년’ 및 ‘고립 혹은
은둔’** [이 키워드의 언론기사 현황(2022년 7월 1
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https://www.
bigkinds.or.kr/](https://www.bigkinds.or.kr/)

Social Withdrawal in Young Adults: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Kim, Seong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dynamics of social withdrawal among young Korean adults and their needs, drawing on micro-data from the Youth Survey for 2022 and 2024, and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youth support. The share of socially withdrawn individuals, those who, in near-complete detachment from social engagements, rarely leave their homes, rose from 2.4 percent in 2022 to 5.2 percent in 2024. This increas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more young adults have become reclusive; rather, it suggests that some who had previously remained hidden in isolation are, in a sense, stepping forward, voicing their struggles, and seeking support for recovery and independent living. I analyze the living conditions and needs of these socially isolated young adults, a newly recognized vulnerable group, and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nationwide expansion of Youth Future Centers and the systematization of support services; tailored assistance to promote recovery and socioeconomic independence; regional expansion of initiatives through hub institutions; training and improved treatment of specialized personnel; the cultivation of public awar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dium- to long-term policy roadmap.